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김희경(Hee Kyung Kim)¹⁾

유미숙(Mee Sook Yoo)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additional independent influence of playful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except for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517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3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Gyu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Our findings indicated that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 turn, children's playfulness affecte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Moreover,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playful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for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놀이성(Playfulness).

I. 서 론

현대의 물질만능주의와 학업위주의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은 보다 과제 지향적, 성취 지향적, 경쟁적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

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사라지고, 극도의 자기중심적 이기심, 도덕 불감증,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정서적 고통,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아

* 이 논문의 자료는 201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도봉아동발달센터 놀이치료사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 Kyung Kim, 926-21, Bangbae-dong, Seocho-gu, Seoul 137-060, Korea
E-mail : heekyung0516@hotmail.com

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측면인 정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었고(Goleman, 1995), 정서지능(EI :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정서지능이란 학업성취,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 적응, 그리고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Salovey & Mayer, 1990)이며,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용하고 조절하여 사회적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효율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Kunnantt, 2004),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이인학 · 최성열, 2009),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며(류지연, 2008), 창의성이 높다(최종욱 · 이영석, 2003)고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감(이수미 · 조경자 · 김혜리, 2009), 주관적 안녕(wellbeing)(Bar-On, 2005), 업무수행(문용린 · 임태조 · 곽윤정 · 이현웅, 2007)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현재나 미래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외적 환경변인과 내적 개인변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이들 변인 각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인과 개인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아동의 기질 및 양육행동과 정서지

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순혜(2003)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류지연(2008)의 연구 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의 정서능력이란 다양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 집합적으로 사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Saarni, 1989) 여러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미선과 문혁준(200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변인,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또래환경 변인으로 나뉘 동시에 고려하였고, 그 결과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동변인인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환경적 영향 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변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며, 환경변인에 비해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라면 환경적 변인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변인과 개인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변인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Salovey와 Mayer(1990)는 개인의 정서적 기술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며 돌보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오성심 · 이종승, 1982)이며, 부모가 자녀와 관계 맺는 양식(Atwater, 1992)인 양육행동은 영유아기 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인생 초기에 더욱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격형성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유가호 · 김길안, 2003).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외적 환경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에 의해 보고되는 양육행동보다 그들이 지각하고 이해한 양육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실제로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행동보다 아동의 정서지능 점수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김정원, 2002). 또한 유아기 및 아동기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Pettit, Bates, & Dodge, 1997),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안현지,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들로 자기효능감(장미선·문혁준, 2006), 자아개념(류지연, 2008), 성격특성(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2), 자아탄력성(서미화, 2008), 기질(김순혜, 2003)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본 연구(한미현, 2002)와 만 4~6세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능력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김지혜·김광웅, 2006)가 있다. 앞서 정서지능이란 개인의 건강한 삶과 원만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놀이성 또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Piaget, 1962; Winnicott, 1971).

놀이성이란 내재적 성격 특성을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으로서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내지 태도를 뜻하며, 개인이 환경에서 가져온 특성이나 속성에 의해 증명된 개별적 성격특성이고(김영희, 2001), 창조성, 적응력과 근본적인 관계를 갖는 성격의 안정적인 차원이다(Lieberman, 1977).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인기가 많고(이영주, 2002), 친사회적이며, 정서상태가 안정적이고, 또래간의

적응이 원활하며(김영희, 1998), 정서능력이 높다고 하였다(김지혜·김광웅, 2006).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해결, 적응, 업무향상, 긍정적 정서와 성격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최진훈, 2008; Mixer, 2009). 이상 언급된 바와 같이 놀이성은 개인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력을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는 성공적인 관계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지능에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놀이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밝힌 최태산과 조미정(2010)의 연구에서, 놀이성 하위변인 중 특히 정서적 놀이성과 사회적 놀이성이 정서지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놀이성이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Erikson, 1977)임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개인변인으로 놀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라는 특성을 유아기에 국한된 것으로 취급하여 놀이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미취학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이라는 내적 성격특성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놀이성 또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밝힌 선행연구(권수진, 2007; 신선희·차윤희·김영희, 2008)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한 양육행동과 아동의 놀이성 간의 위계적 모형에 대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개인변인인 놀이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놀이성이 추가적인 독립적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관계맺음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 치료적 개입에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5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상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신뢰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년을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검사지 중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25명과 세 가지 척도 중 한 척도 이상에 대해 전체 문항의 답을 하지 않았거나, 같은 숫자로 답을 한 5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51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M(%)
성별	남	261(50.48)
	여	256(49.52)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82(35.20)
	초등학교 6학년	335(64.80)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제작한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이며, 하위변인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 참여, 대화,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 합리적 지도, 자율성 장려와 같은 **온정·수용** 행동,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하는 **익애적, 굴복형 허용,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과 같은 **허용·방임** 행동,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감정적 훈육, 무시, 억압, 잔소리, 불신 및 침해적 개입과 같은 **거부·제재** 행동 등 3가지이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별로 아동이 어머니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온정·수용 .89, 허용·방임 .73, 거부·제재 .86으로 나타났다.

2) 놀이성

취학 아동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상아와 이정윤(2008)이 제작한 놀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하위변인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능력인 **사회적 적극성**, 대인관계에서

유머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머감각**,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주어진 과제에 열중하는 능력인 **탐구심** 등 3가지이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사회적 적극성 .77, 유머감각 .90, 탐구심 .77, 놀이성 전체 .85로 나타났다.

3)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 (1996)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총 47문항이며, 하위변인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정서인식** 능력,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서표현** 능력,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서활용** 능력 등 5가지이다. 1-37문항은 3점 척도로 평정하며, 38-47문항은 2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정서인식 .82, 정서표현 .76, 감정이입 .71, 정서조절 .85, 정서활용 .65, 정서지능 전체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자가 서울 강남, 강북, 경기도

분당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수거하였다. 먼저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 교사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양육행동, 놀이성, 정서지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각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양육행동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놀이성을 투입하여 증분 설명량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놀이성 및 정서지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제시된 <표 2>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많으며, 놀이성의 경우 사회적 적극성, 유머감각, 탐구심의 순으로 특성을 많이 나타내

다음으로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과 놀이성의 하위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을 보면, 각 변인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성 하위변인 간 단순상관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를 해석하자면, 첫째, 정서인식에 대해 온정·수용($\beta = .22, p < .001$)과 허

용·방임($\beta = -.14, p < .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온정·수용 행동이 더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정서인식 능력은 자녀가 어머니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다. 정서인식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에 대해 거부·제재 행동($\beta = -.17, p < .001$)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온정·수용($\beta = .12, p < .05$), 허용·방임($\beta = -.09,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 능력은 자녀가 어머니를 거부·제재적이며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고,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아진다. 정서표현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이입에 대해 온정·수용 행동($\beta = .26, p < .001$)이 가장 강력

<표 4>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2	F
정서인식	온정·수용행동	.22***	.07	12.30***
	허용·방임행동	-.14**		
	거부·제재행동	-.01		
정서표현	온정·수용행동	.12*	.07	13.55***
	허용·방임행동	-.09*		
	거부·제재행동	-.17***		
감정이입	온정·수용행동	.26***	.06	11.05***
	허용·방임행동	-.13**		
	거부·제재행동	.11*		
정서조절	온정·수용행동	.39***	.15	29.82***
	허용·방임행동	-.12**		
	거부·제재행동	.03		
정서활용	온정·수용행동	.24***	.10	18.86***
	허용·방임행동	-.09*		
	거부·제재행동	-.10*		
정서지능 전체	온정·수용행동	.41***	.21	44.38***
	허용·방임행동	-.18***		
	거부·제재행동	-.03		

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허용·방임($\beta = -.13, p < .01$)과 거부·제재($\beta = .11,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이입 능력은 자녀가 어머니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으며,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높다. 감정이입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조절에 대해 온정·수용($\beta = .39, p < .001$), 허용·방임($\beta = -.12, p < .01$)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중 온정·수용 행동이 더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즉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가 어머니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다. 정서조절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서활용에 대해 온정·수용 행동($\beta = .24, p < .001$)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부·제재($\beta = -.10, p < .05$), 허용·방임($\beta = -.09,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활용 능력은 자녀가 어머니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고, 거부·제재적이거나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다. 정서활용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서지능 전체에 대해 온정·수용 행동($\beta = .41, p < .001$)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허용·방임 행동($\beta = -.18, p < .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 총점은 자녀가 어머니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높고,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낮다. 정서지능 총점을 예측해주는 양육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정서지능과 그의 모든 하위변인들에 대해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정적 영향력을,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반면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감정이입에 대해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2.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를 해석하자면, 첫째, 정서인식에 대해 사회적 적극성($\beta = .22, p < .001$)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탐구심($\beta = .18, p < .001$)과 유머감각($\beta = .15, p < .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적극성, 탐구심,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에 대해 사회적 적극성($\beta = .24, p < .001$)만이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변인의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적극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감정이입에 대해 유머감각($\beta = .21, p < .001$)이 가장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탐구심($\beta = .20, p < .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유머감각과 탐구심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조절에 대해 사회적 적극성($\beta = .28, p < .001$)이 가장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탐구심($\beta = .23, p < .001$)과 유머감각($\beta = .12, p < .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적극성, 탐구심,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서활용에 대해

<표 5>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2	F
정서인식	사회적 적극성	.22***	.18	36.81***
	유머감각	.15**		
	탐구심	.18***		
정서표현	사회적 적극성	.24***	.07	12.13***
	유머감각	.04		
	탐구심	-.02		
감정이입	사회적 적극성	.06	.14	27.22***
	유머감각	.21***		
	탐구심	.20***		
정서조절	사회적 적극성	.28***	.23	51.63***
	유머감각	.12*		
	탐구심	.23***		
정서활용	사회적 적극성	.25***	.07	12.88***
	유머감각	-.02		
	탐구심	.07		
정서지능 전체	사회적 적극성	.34***	.33	82.19***
	유머감각	.17***		
	탐구심	.23***		

사회적 적극성($\beta = .25, p < .001$)만이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변인의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적극성이 높을수록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정서지능 총점에 대해 사회적 적극성($\beta = .34, p < .001$)이 가장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탐구심($\beta = .23, p < .001$)과 유머감각($\beta = .17, p < .0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적 적극성, 탐구심,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정서지능 총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한편, 놀이성을 하위변인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놓고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을 살펴보면, 정서지능 총점에 대해서 놀이성이 갖는

설명력은 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23%, 정서인식에 대해 18%, 감정이입에 대해 13%, 정서활용에 대해 5%, 정서표현에 대해 4%의 순서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2	F
정서인식	놀이성 전체	.42***	.18	110.12***
정서표현		.21***	.04	23.50***
감정이입		.36***	.13	76.42***
정서조절		.48***	.23	151.04***
정서활용		.23***	.05	28.18***
정서지능 전체		.57***	.32	240.10***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정서인식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정서인식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1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인식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표 7> 정서인식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온정·수용	.22***	.07	12.30***		
허용·방임	-.14*				
거부·제재	-.01				
2단계					
온정·수용	.05	.19	30.43***	.12	79.21***
허용·방임	-.09*				
거부·제재	-.06				
놀이성	.39***				

2)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정서표현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

<표 8> 정서표현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온정·수용	.12*	.07	13.55***		
허용·방임	-.09*				
거부·제재	-.17***				
2단계					
온정·수용	.04	.10	13.58***	.03	12.74***
허용·방임	-.07				
거부·제재	-.19***				
놀이성	.16***				

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표현을 설명하는 정도는 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표현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3) 감정이입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감정이입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감정이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6%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감정이입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표 9> 감정이입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온정·수용	.26***	.06	11.05***		
허용·방임	-.13**				
거부·제재	.11*				
2단계					
온정·수용	.12*	.14	21.12***	.08	48.30***
허용·방임	-.09*				
거부·제재	.07				
놀이성	.31***				

4)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정서조절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정도는 15%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1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표 10> 정서조절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온정·수용	.39***	.15	29.82***		
허용·방임	-.12**				
거부·제재	.03				
2단계					
온정·수용	.21***	.28	49.72***	.13	93.32***
허용·방임	-.07				
거부·제재	-.01				
놀이성	.40***				

5) 정서활용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정서활용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활용을 설명하는 정도는 10%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활용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표 11> 정서활용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온정·수용	.24***	.10	18.86***		
허용·방임	-.09*				
거부·제재	-.10*				
2단계					
온정·수용	.18***	.12	16.68***	.02	9.24***
허용·방임	-.07				
거부·제재	-.12*				
놀이성	.14**				

6) 정서지능 전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놀이성의 영향

정서지능 총점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 전체를 설명하는 정도는 2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놀이성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18%로 유의하게 나

<표 12> 정서지능 전체에 대한 양육행동 및 놀이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R^2	F	ΔR^2	ΔF
1단계		.21	44.38***		
온정·수용	.41***				
허용·방임	-.18***				
거부·제재	-.03				
2단계		.39	81.61***	.18	153.51***
온정·수용	.21***				
허용·방임	-.12***				
거부·제재	-.08*				
놀이성	.47***				

타났다. 양육행동과 놀이성이 정서지능 총점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건강한 발달의 기반이자 핵심요인인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별개로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대해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만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보다 애정적, 수용적이며, 존중하고,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잘 반응하며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아동에게 불만, 부정적인 평가,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고, 감정적인 훈육과 무시를 자주 하지 않으며,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만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보다 애정적, 수용적으로 존중하고,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서표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가 애정적, 수용적이며, 존중하고,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만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아동에게 불만, 부정적인 평가, 비난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할수록,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만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보다 애정적, 수용적으로 존중해주며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목표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적응적으로 이끌어 내는 정서 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가 자녀를 무시, 비난, 감정적 훈육을 하지 않고, 또한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며, 보다 애정적이며 존중하고,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정서적으로 융통성 있는 계획세우기, 창조적 사고, 주의집중의 전환 등 문제해결에 정서를 활용하는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만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며, 보다 애정적이며, 존중하고, 합

리적 지도를 할수록, 정서지능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정원, 2002; 류지연, 2008;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안현지, 1999; 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경우, 즉 냉정하고, 무 반응적이고, 제한설정이 부족할수록 아동들은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순종적이지 않고,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Gottman & Katz, 1989)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제재 행동이 정서지능 총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규제력을 약화시키고 정서조절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정서지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elsky, Putnam, & Keith, 1996)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감정이입 능력에 대해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감정이입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감정이입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장 주된 양육행동으로 취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즉 거부·제재 행동의 순기능에 대해서 언급한 박영애·최영희와 박인전(2000)의 연구결과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입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김정원, 2002)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본 연구가 각 변인들에 대해 1인의 측정 자료만을 사

용함으로써 응답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 다양한 지역, 문화 환경에 따른 차이 등 표본의 특성이 배제되지 않은 가능성,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거부되거나 제재적으로 대해짐에 따라 부모의 기분을 살피게 되거나 자신의 좋지 않은 기분을 오히려 타인의 상황에 쉽게 감정이입하게 되는 가능성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상 특성인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실제로 순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변인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놀이성과 하위변인인 사회적 적극성, 유머감각, 탐구심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일수록,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과 정서 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 관계에서 유머감각을 발휘하는 아동일수록,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주어진 과제에 열중하는 능력이 있는 아동일수록,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놀이성 총점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지능 총점 및 모든 하위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 발달에 있어서 놀이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김영희, 1995),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능력을 높이기 위해 놀이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한 연구결과(김지혜·김광웅, 2006), 그리고 유아의 놀이성이 정서지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 연구(한미현, 2002)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놀이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유아는 상상력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태도를 가졌으며, 정서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에 시도를 하며,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 연구결과(Singer & Rummo, 1973)를 지지한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놀이성은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로써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추가로 정서지능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개인변인이 환경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 연구결과(장미선·문혁준,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유인순(2005)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과 놀이성의 높은 상관을 보고하였고, 한편 김순혜(2003)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대해 아동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영향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통제하더라도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에 대해 놀이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정서지능에 대해 내적 개인변인인 놀이성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놀이성이라는 내적 개인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대한 놀이성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이후에도 아동에게 놀이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긍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동 놀이성 연구의 확장 및 심리 치료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전부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 및 교사, 또래를 통한 자료 수집 등 객관적 평정적도를 고려하는 경우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좀 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나온다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감정이입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연령을 고려한 발달 특성의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놀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수진(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놀이성, 문제 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

- 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혜(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2.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변인 탐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98). 유아의 놀이성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적응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 24-36.
- 김영희(2001). 성격특성과 놀이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31-40.
- 김정원(2002).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3), 247-261.
- 김지혜 · 김광웅(2006).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9(1), 91-105.
- 류지연(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용린(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 삼성생명 정신건강연구소**, 75-89.
- 문용린 · 임태조 · 박윤정 · 이현웅(2007). 한국 조직내에서의 정서지능과 성인의 업무수행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1).
- 박상아 · 이정윤(2008). 아동용 놀이성 척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청소년상담연구**, 16(1), 139-152.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1-182.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2). 아동의 성격특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23-134.
- 서미화(2008).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선희 · 차윤희 · 김영희(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299.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트**, 11(1),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유가효 · 김길안(2003).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인간발달연구**, 10(1), 1-20.
- 유인순(200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미 · 조정자 · 김혜리(2009).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3).
- 이영주(2002).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놀이성 및 놀이스타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학 · 최성열(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18(4), 47-56.
- 장미선 · 문혁준(2006).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11-21.
- 최종욱 · 이영석(2003). 유아의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련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139-172.
- 최진훈(2008). 근로자의 놀이성이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업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태산 · 조미정(2010).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정서지능간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31-45.
-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twa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arent structure and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1012-1022.
- Bar-On, R. (2005).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ubjective Well-Being. *Perspectives in Education*, 23(2), 1-22.
- Belsky, J., Putnam, S., & Keith, C. (1996). Coparenting,

- parenting, and early emotional development,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74, 45-55.
- Demo, D. N., Small, S. A., & Savin-Williams, R. (1987). Family relation and the self-esteem of 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of the Family*, 49, 705-705.
- Erikson, E. H. (1977). *Toys and Reasons*. New York : Norton.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Kunnantt, J. T. (2004). Emotional Intelligence : The new science of international effectivene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4), 489-495.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 Academic Press.
- Mixter, A. (2009). An exploration of adult playfulness in relationship to personality : A correlational study. California :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 Norton.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inger, D. G., & Rummo, J.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1.
- Winnicott, D. (1971).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 Basic Books.

2010년 6월 29일 투고, 2010년 8월 27일 수정
2010년 9월 10일 채택